지금도 유효한 삶의 방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譯者, 책을 말하다

칙수백장청규 역주

동양덕휘 중편 , 소은대소 교정|최법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

청규와 계율의 차이

'청규(淸規)'라고 하면 먼저 중국의 백장회해(720~814) 선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선사의 유명한 말씀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않는다'는 금언이 떠오른다.

원래 불교에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장이 있다. 그 밖에 또 다른 율장은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율장이란 이름으로 계율을 만들거나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부처님 열반 후 제 1결집에서 500비구들이 결의한 사항으로서 지금도 그 원칙과 사상이 존중되어 계승되고 있다.

청규란 출가수행자의 수행완성을 위하여 선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정한 많은 대중들이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백장 선사는 부처님의 율장가운데 예외 규정인 수방비니(隨方毘尼) 즉 특별한 경우 부처님께서 그 지역 그 문화에 따라 수계 등 의·식·주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로 법에 정해준 내용을 준하여 율장이 아닌 청규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규의 내용은 율장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백장 선사의 <고청규>는 지금은 전해오는 것은 없다. 그러나 백장 선사 입멸 후 송대부터 시작하여 원·명·청 대를 내려오면서 찬술된 청규는 수종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신라 고려를 통하여 흥성하였던 선종은 조선조 500년의 숭유 억불정책과 종파통폐합의 영향으로 선(禪)·교(敎)의 양종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승려취처의 정책으로 거의 왜색불교화 되었다. 때문에 종합수도원인 총림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적당한 선원 운영과 거기에 알맞은 규약을 만들고 또한 결사의 형태로 선사상과 선맥을 계승하고 있었다.

청규의 종합판 '칙수백장청규'

중국에서 찬술된 청규서 가운데 그 대표적인 청규는 송(宋)대 자각종색 선사의 <선원청규>(1103년 찬)와 원(元)대, 1338년에 찬술된 <칙수백장청규>라고 할 수 있다.

<칙수백장청규>는 원대 중국 청규의 대표적 청규서이다. 이 청규는 황제의 칙명에 의하여 동양덕휘 선사와 소은대소 선사가 함께 종색의 <선원청규>와 유면 선사가 찬술(1274)한 <총림교정청규>, 일함 선사가 찬술(1311)한 <선림비용청규> 등을 참고하여 찬술했다. 다만 칙명에 의하여 전국에서 시행한 청규라는 비자주적인 점도 있지만 당시 중국의 여러 청규서를 상고(詳考)한 체제가 완비된 청규서로 인정받고 있다.

그 <칙수백장청규>는 총 9장 8권(혹 2권)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축리(祝釐)·보은(報恩)·보본(報本)·존조(尊祖)·주지(住持)·양서(兩序)·대중(大衆)·절납(節臘)·법기(法器)장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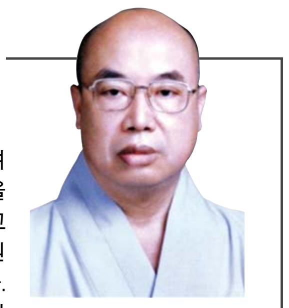
이 칙수청규의 내용에는 행자교육에서부터 비구들의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소임자들은 대중을 위한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대중이 방장스님께 청문하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연구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청규에 의한 생활이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수행해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청정교단 정법 유전의 근본 세우기

조계종은 종헌·종법에 의하여 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헌·종법의 근저에는 청규와 계율을 의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구·비구니 수계의식과 종단의 구성 그리고 비구 근본계율인 4바라이 등은 계율에 의지하고 있으며, 금전의 취급과 사원을 중심으로 한 의·식·주의 생활, 그리고 공동작업 노동 등은 계율에서는 모두 금지 조항이지만 청규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국가에 헌법과 법률이 있듯이 불교 교단에는 계율과 청규와 종헌·종법이 있다.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잘 준수하여야 청정한 교단을 유지 할 수 있다. 특히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는 조계종은 모범적인 청규를 편찬하여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오래 유전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내용상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칙수백장청규 역주>가 제방 선원에서 수행하는 선원스님들과 전국 율원에서 청규를 연구하는 스님들은 물론 청규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것은 이번에 출간된 책은 모두가 비매품 법공양판으로 전국의 선원과 율원 교구본사 승가대학 등에 보급하여 시중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후일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교관계 도서관을 이용하기를 부탁드려야 하니,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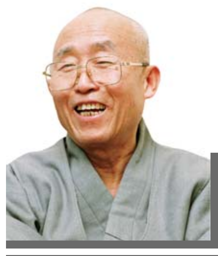
■ 법혜 스님



해인사로 출가하여 해인강원에서 내전을 수학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본 大正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학장 및 정각원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및 안동 봉정사 주지를 거쳐 현재 대구 대각사 회주.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4>

경전 구성의 필수 요소는 '육성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3개월 전에, 법회를 열어 <열반경>을 설해마치시니, 대중들은 머지않아 닥쳐올 부처님의 열반을 아쉬워하며 미리부터 마음 아파했다. 그중 상수, 가섭존자는 구시나성을 벗어나 어느 한적한 동산에서 선적에 드셨고, 아난존자는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이때에 대중 중의 원로비구들이 아난존자에게 말하기를 "존자는 호지법장자로서 법등(法燈)이 곧 사라지려는데 울고만 계시면 어찌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존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되물으니, 대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부처님께 여쭈어두라고 했다. 그 네 가지란 지혜의 횃불이 꺼지신 뒤에, 첫째 무엇을 의지해야합니까, 둘째 누구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승으로 모셔야하겠습니까, 셋째 간혹 포악한 비구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겠습니까, 넷째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경전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경 첫머리에다 무어라 써야 하겠습니까 등이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설법의 사실성 입증
아난의 송출에 대중의 증명으로 믿음 줘

첫째 물음에는 사념처(四念處)에 의지하라 하셨다. 사념처란 수행자가 마음을 묶어두어야 할 네 가지 덕목(德目)이다. 첫째, 이생선영불실(已生善令不失) 이미 생긴 선(善)은 잃지 말라. 둘째, 미생악영불생(未生惡令不生)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못하게 하라. 셋째, 이생악영단(已生惡令斷) 이미 생긴 악(惡)은 끊으라. 넷째, 미생선영생(未生善令生)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라 이다.

둘째 물음에는 이계위사(以戒爲師)하라. 즉 계(戒)로써 스승을 삼으라 하셨다. 계는 만고의 바른 스승이시니, 계를 지키면 있는 곳 어디서나 스승을 만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셋째 물음에는 묵빈대처(默擯對處)하라 하셨으니, 묵빈대처란 포악(暴惡)한 놈이 수행대중을 괴롭히면 제압(制壓)하거나 내쫓는 대신 제풀에 꺼지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용해지게 하는 것이 싸워서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마지막 물음에는 경 첫머리[經首]에 육성취(六成就)를 두라는 것이다. 육성취란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춘 머리말이란 뜻이니, 신(信=宣誓)·문(聞)·시(時)·주(主)처·(處)·중(衆) 등 여섯 가지인데 이 여섯 가지 조건(條件)이 갖추어져야 경전의 권위(權威)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러 경전 중,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금강경(金剛經)>의 육성취를 예로 든다면 첫 머리의 여시(如是)는 신성취(信成就)요, 아문(我聞)은 문성취(聞成就)요, 일시(一時)는 시성취(時成就)요, 불(佛)은 주성취(主成就)요, 재사위국(在舍衛國) 云云은 처성취(處成就)요, 여대비구중(與大比丘衆) 云云은 중성취(衆成就)다. 이 여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송경자(頌經者) 아난이 송출(頌出)하고, 대중이 증명(證明)한 여법(如法)한 경이라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다.

마치 극본(劇本)을 짜 놓은 듯 모든 일이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진행되자, 부처님께서는 구시나성(拘尸那城) 사라쌍수(沙羅雙樹) 사이에서 조용히 열반(涅槃)에 드셨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농축액 (진액) 500g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